한국문학탐방 III

발표 자료집

2017

(4월 6일 ~ 4월 8일)

충청북도 일부 및 강원도 일대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한국문학탐방 III

발표 자료집

2017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목차

1. 탐방단 구성 --- p
2. 버스 좌석표 --- P
3. 방 배정표 --- P
4. 답사 일정표 --- P
5. 지도 --- P
6. 답사 보고서 --- P
7. <1조> 원호 --- P
8. <2조> 온달설화 --- P
9. <3조> 김삿갓 --- P
10. <4조> 이효석 --- P
11. <5조> 허균·허난설헌 --- P
12. <6조> 김동명 --- P
13. <7조> 정철 --- P
14. <8조> <해가> --- p

《 주의사항 》

- 답사 주의사항

1. 인솔자(담당 교수, 학생회장, 부회장, 답사부장, 조장)의 통제를 따른다.
2. 학교·학과의 일원으로서 명예롭게 행동한다.
3. **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음주는 삼간다.**
4. 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개인 행동 및 무단 이탈을 하지 않는다.
5. **차량에 탑승하면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 차량 내 주의사항

1.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2. 하차할 때 기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3. 음식물은 취식하지 않는다.
4. 쓰레기를 좌석 그물망에 두지 않고 차량 앞이나 뒤에 모아 놓는다.
5. 승차하기 전 신발을 최대한 털어 먼지를 최소화 한다.
6.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하며, 음악 감상은 이어폰을 사용한다.

- 숙소 내 주의사항

1. 개별 이동할 때 반드시 조장에게 알린다.
2. 시간 통제에 따른다.
3. 개별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쓴다.
4. 음주는 절대 하지 않는다.
5. 화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전체진행 : 학생회장 (박정현 010-9778-1179)
발표사회 : 답사부장 (허선호 010-6291-5661)
숙식관리 : 부학생회장 (박상우 010-4632-5128)
자료집제작 : 편집부장 (이제훈 010-5370-2914)
재정 및 진행기록 : 조교 (김유미 010-9366-9340)

조	조장	재학생
1	권연송	장백석 홍예지 권주원
2	김원목	박은선 최세연 박상우 김기훈 이지원(객)
3	이제영	변지현 하민아 정현아 오유나(객)
4	임무혁	서한별 홍찬영 김진경 허선호
5	임찬영	박진경 장은영 박정현
6	전소민	안문혁 엄지호 이제훈 고은지(객) 안혜린(객)
7	정시연	우정화 이단비 박지은 김태영(객)
8	최예진	이호준 이혜원 BOLUN WU 김홍인(객)

조	주제
1	원호
2	온달설화
3	김삿갓
4	이효석
5	허균·허난설현
6	김동명
7	정철
8	<해가>

<주의사항>
-답사지에서 발표와 자유 관람을 반씩 진행함
-자유 관람 시 안전을 위해 개인행동도 조별로 실시함
-명찰은 반드시 패용할 것
-교수, 조교, 인솔담당 학생회 임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

《 한국문학탐방 좌석배치 》

기사님		계단
김명준교수님		김기훈 학회장
부학회장 답사부장		조교 이지원
이병기교수님		홍찬영 임찬영
권연송 홍예지		박진경 장은영
장백석 권주원		전소민 엄지호
김원목 박은선		안문혁 이제훈
최세연 변지현		정시연 이단비
하민아 정현아		우정화 박지은
이제영 임무혁		최예진 이혜원
서한별 김진경		이호준 BOLUN WU

김태영	김홍인	오유나	고은지	안혜린

<한국문학탐방Ⅲ> 1일차 방 배정표

■ 여자

1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71037	박은선	20161092	전소민
20171045	변지현	20151129	장은영
20161078	이혜원		

2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71047	서한별	20171062	우정화
20161106	최예진	20151131	정현아

3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71098	최세연	20161114	홍예지
20171104	하민아	20151116	박지은

4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61016	김원목	20161045	박진경
20161007	권연송	20151110	김진경

5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61059	엄지호	20141126	안혜린
20161065	이단비	20141103	고은지
20141127	오유나		

■ 남자

1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71055	안문혁	20131140	허선호
20171116	홍찬영	20157006	권주원
20161086	임찬영	20141115	김태영

2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71080	이호준	20151126	이제훈
20161076	이제영	20171087	장백석
20161095	정시연	20147001	BOLUN WU

3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61081	임무혁	20121142	김기훈
20131114	박상우	20111116	김홍인
20121119	박정현		

<한국문학탐방Ⅲ> 2일차 방 배정표

■ 여자

1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71037	박은선	20161092	전소민
20171045	변지현	20151129	장은영
20161078	이혜원		

2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71047	서한별	20171062	우정화
20161106	최예진	20151131	정현아

3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71098	최세연	20161114	홍예지
20171104	하민아	20151116	박지은

4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61016	김원목	20161045	박진경
20161007	권연송	20151110	김진경

5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61059	엄지호	20141126	안혜린
20161065	이단비	20141103	고은지
20141127	오유나		

■ 남자

1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71055	안문혁	20131140	허선호
20171116	홍찬영	20157006	권주원
20161086	임찬영	20141115	김태영

2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71080	이호준	20151126	이제훈
20161076	이제영	20171087	장백석
20161095	정시연	20147001	BOLUN WU

3

학번	이름	학번	이름
20161081	임무혁	20121142	김기훈
20131114	박상우	20111116	김홍인
20121119	박정현		

《 2017학년도 답사 일정표 》

※ 충북 일부 및 강원도 동해안: 1일차(제천, 단양, 영월) / 2일차(봉평, 강릉) / 3일차(삼척, 양양)

구분	1일차 04.06.(목)	2일차 04.07.(금)	3일차 04.08.(토)
08	08:40 학교 집합	08:10 퇴실, 식당 이동(5분) 08:20 식당 도착(식사 40분)	08:00 조식(리조트)
09	09:00 학교 출발(2시간) ※ 1시간 30분 이동 휴게소 (치악휴게소: 20분 휴식)	09:00 인원점검 및 출발(1시간 50분)	09:00 인원점검 및 출발(15분) 09:05 유채꽃 관람(25분) 09:30 죽서루 출발(10분) 09:40 죽서루 도착 <7조>발표: 정철(40분)
10		10:50 이효석문학관 도착(1.5) <4조>발표: 이효석(40분)	10:20 죽서루 출발(15분) 10:35 해가 터 <8조>발표: <해가>(45분)
11	11:10 원호 유허비(관란정) 도착 <1조>발표: 원호(40분) 11:50 인원점검 및 출발(40분)	11:30 인원점검 및 출발(1시간)	11:20 인원점검 및 출발(1시간 20분)
12	12:30 식당 도착(식사 40분)	12:30 식당 도착(식사 40분)	12:40 식당 도착(식사 40분)
13	13:10 인원점검 및 출발(10분) 13:20 온달산성 도착(4.) <2조>발표: 온달설화(2시간)	13:00 허균.허난설헌기념관 도착 <5조>발표: 허균.허난설헌(50분) 13:50 인원점검 및 출발(10분)	13:20 인원점검 및 출발(15분 이동) 13:35 낙산사 도착 조별 관람(1시간)/(2.5)
14		14:00 오죽헌 도착(50분)/(1.5) 14:50 인원점검 및 출발(5분) 14:55 경포대 도착(25분)	14:35 인원점검 및 출발(2시간 30분)
15	15:20 인원점검 및 출발(30분) 15:50 난고김삿갓문학관(1.5) <3조>발표: 김삿갓(1시간)	15:20 인원점검 및 출발(5분) 15:25 김시습기념관 도착(25분) 15:50 인원점검 및 출발(10분)	※ 1시간10분 이동 이후 대명 휴게소 혹은 광치령 휴게소(20분 휴식)
16	16:50 인원점검 및 출발(50분 이동)	16:00 김동명 문학관 도착 <6조>발표: 김동명(30분) 16:30 인원점검 및 출발(1시간)	
17	17:40 식당 도착(식사 50분)	17:30 식당 도착(식사 50분)	17:30 학교 도착 및 해산
18	18:30 인원점검 및 출발(10분) 18:40 숙소 도착, 입실(30분)	18:20 인원점검 및 출발(20분) 18:50 숙소 도착, 입실(40분)	※ 소감문은 추후 제출
19	19:30 소감문 작성(조별; 1시간)	19:30 소감문 작성(조별; 1시간)	
20	20:00 토의 및 소감문제출(~20:30)	20:00 토의 및 소감문제출(~20:30)	
22	개인정비 및 취침	개인정비 및 취침	
숙식	중식:주원국밥(제육볶음; 700kcal) 043-421-4457 / 10. 석식: 장다리(마늘정식; 800kcal) 043-423-3960 / 13.	조식: 경주식당(복매운탕; 450kcal) 043-423-4367 / 10. 중식:토담순두부(순두부전골; 550kcal) 033-652-0336 / 8. 석식:감나무집(감나무정식; 800kcal) 033-575-5733 / 10.	조식:리조트(갈비탕; 500kcal) / 10. 중식:감나무식당(황태해장국; 500kcal) 033-672-3905 / 8.
	대명리조트 단양	씨스포빌 리조트	

<답사 여정>

<답사 보고서> (일일 제출용)

※ 답사 참가자는 답사 보고서를 1매씩 작성하여 조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조장은 조원들의 답사지를 모아 매일 21시까지 답사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조		학번		이름	

답사지	관찰내용	특기 사항

【감상 : 문학 탐방과 관련하여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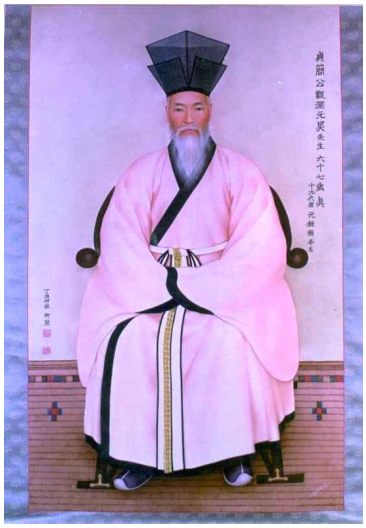
【기타 감상 : 좋고 고맙고 감동적이었던 부분】

메모장

1조 - 원호

1. 원호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57006 권주원



원호[元昊] (1397년~1463년) 본관은 원주(원주시 개운동 송림)이며, 별장을 지낸 원헌의 셋째아들이다. 자는 자허(子虛),호는 관란(觀瀾) 또는 무항(霧巷)이고,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킨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조선시대에 활동했다. 어려서부터 남들과 다르게 총명하고 글 읽기를 좋아했다. 1423년(세종5)에 세종이 경회루에서 실시한 식년문과에서 급제하여 집현전 학자로서 많은 벼슬을 지내다가, 문종 때 집현전 직제학을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1453년(단종1)계유정난 때 수양 대군이 김종서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원주(원주시 판부면 남송)로 돌아가 숨어 지냈다고 한다. 그 후 1456년(세조2) 성삼문 등의 세조 제거 계획이 실패하고 다음해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었을 때 원호는 영월 서쪽에 관란재觀瀾齋)라는 이름에 집을 짓고, 강가에 나가 시를 읊거나, 문을 닫고 저서하며 새벽과 저녁이면 멀리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1457년(세조3) 단종이 유배된 다음 해에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자 단종은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승하하였다. 원호는 단종이 살해당한 후 매우 슬퍼하였다. 후에 세조가 호조참의로 임명 했으나 그 마저도 죽기로 맹세하며 거절할 만큼 단조의 대한 마음이 강했다. 또 단종의 능이 집의 동쪽에 있다 하여 앉을 때는 반드시 동쪽으로 앉고, 누울 때는 또 반드시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현대에 원호의 글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탄세사, 몽유록 등) 그 이유는 손자인 원숙강이 사관으로 직필을 하다가 화를 당하자 원호는 평소의 저술 및 소장을 전부 불태우고 자손들에게 다시는 책을 읽어 명리를 구하지 말라고 주의 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력과 생년, 사행의 시종이 전하는 바가 없다.

단종이 승하한 후에 원호는 관부에 있지 않고 주천토실로 돌아가 은거하다가 1463년 10월 3일 67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 1703년(숙종29) 원천석(元天錫)의 사당에 배향되었고, 1782년(정조6) 생육신인 (김시습, 남효온, 성담수)와 함께 이조판서에 추증 되었다. 또 숙종 때 그 절개를 찬양하여 고향에 정문이 세워졌다고 한다. 원주 칠봉서원, 함안 서산서원에 제향 되었고, 정조는 교지와 함께 시호는 정간이라 하고 토실마을에 '모현사' 라는 사당을 세워 원호의 절의정신을 기렸다. 그리고 1845년(헌종11) 초막 자리에 원호의 호를 딴 관을 짓고, 홍양호가 찬하여 유허비를 세웠다고 한다.

《참고문헌》
한국 브리태니커회사, 『브리태니커세계백과사전』, 제17권,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2)
세종대왕기념사업회편집부,『국역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제15권,(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2. 단종과 충신들

인문학부 20171087 장백석

단종은 조선의 제6대왕으로 부왕인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병으로 인해 사망하면서 승하하자 왕위에 올랐다. 그 전에 문종은 자신이 병약하고 단종이 나이 어린 것을 염려하여 황보인, 김종서 등에게 단종이 즉위하여 왕이 되었을 때의 보필을 부탁하였다. 그 결과 단종이 즉위 했을 때 김종서가 좌의정, 황보인이 우의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안 좋게 본 권력의 야망을 가진 숙부인 수양대군(세조) 계유정난을 통해 단종은 3년 만에 왕권을 잃는다. 단종은 처음에는 예우를 받아 왕위에서 물러나 수강궁에 머물게 된다.

1456년(세조 2년) 사육신인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등) 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단종은 자신의 숙부를 죽이려는 음모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성공을 하라고 보검까지 내린다. 그러나 이 때 단종 복위에 참여했던 사예와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정창손이 즉시 김질과 함께 대궐로 가서 반역을 고발하였다. 이로 인해 거사는 막을 내렸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육신들은 모두 사망한다. 그리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이 되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된다.

이후 수양대군(세조)의 동생이며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다시 경상도 순흥에서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사사하자, 노산군에서 다시 강등되어 서인이 되었다. 나중에 세조가 애초에 뿌리가 없으면 반란도 안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여 단종에게 사약을 마시게 하여 단종은 1457년(세조 3년) 10월에 영월에서 죽게 된다. 단종이 죽자 생육신 원호는 관란정에서 3년 상을 치른다. 또한 김시습,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등 다른 생육신도 세조의 즉위를 부도덕한 왕위 찬탈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하고 벼슬 등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후 숙종시대에 성리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나타나, 사육신에 대해 16세기 재야 사림파 학자들이 사이에서 그 충절을 높이 평가하고 이들의 정신을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1691년(숙종 17년)에 사육신에 대해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1694년(숙종 24년) 11월 6일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던 호칭이 단종이라는 묘호로 올려졌다.

사육신의 복권과 단종의 왕위 회복은 단종의 복위와 관련해 목숨을 잃은 200여명의 사람들에 대한 추모도 있지만, 당대 사회상인 성리학적 모습을 보면 숙종이 확고하게 사회상을 확립하려했던 것과 역사기록에 대한 것도 중요시 여긴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정용수,「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의 문학성과 조선시대 육신(六臣)의 인식」, (동방한문학회, 2007)
신병주, 「단종, 유배에서 복권까지 -조선시대판 역사바로세우기」, (남명학연구원, 2010)

3. 원호의 '간밤에 우던 여흘'

국어국문학과 20161007 권연송

원호는 조선조 문종 때에 집현전직제학을 지낸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세조가 등극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 원주(原州)에 숨어들었다. 단종을 사모하여 영월(寧越)로 가서, 물가의 석실(石室) '관란(觀瀾)'에 살면서 눈물짓다가, 끝내 단종이 운명하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음은 원호가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寧越)'에 따라가 쓴 시조이다.

> 간밤에 우던 여흘 슬피 우러 지내여다
>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우러 보내도다
>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져 나도 우러 예리라

초장은 '지난밤에 소리 내어 흐르던 여울물 슬프게 울며 흘러갔구나' 로 풀이되며, 여울물은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데, 그것이 원호에게는 흘러가던 여울물이 마치 사람이 슬퍼서 우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실제로 원호는 영월의 서쪽인 제천의 사내평(思乃坪) 남한강가에 살며 그 옆 언덕 위로 날마다 올라가 청령포로 흘러가는 상물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시조를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장은 '이제 와서 생각하니 임께서 울며 보내신 것이었구나' 로 풀이되며, 지난밤에는 몰랐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지난밤의 울며 흘러간 여울물의 소리가 '님'으로 비유되고 있는 '단종'이 흘려보낸 울음소리였다는 것이다.

종장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면 다시는 영영 못 만나 본다. 저 물이 만일 거꾸로 거슬러 흘러갈 수가 있다면, 내 설움을 띄워 보내어 같이 울어 보고 싶구나!' 로 풀이된다. 마지막의 '예리라'에는 원호의 단종에 대한 간절하고, 위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물이 거슬러 흘러간다는 것은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원호는 만약 강물이 거슬러 흐른다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단종에 대한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보여준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원호는 단종에 대한 강한 '절의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원호는 3년 상(喪)을 지냈다. 마치 제 부모의 상을 치르는 것처럼 단종의 상을 입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내세운 '불사이군'의 논리는 한번 군신 관계를 맺은 뒤에는 새로운 성격의 군신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원호의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꿋꿋함은 배워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고경식, 김제현, 『시조·가사론』, 예전사, 1988
길종오, 『옛시조감상』, 정신세계사, 2003
황춘기, 『청구영언』, 푸른사상, 2006
오영교, 「관란 원호의 생애와 원주원씨의 동족마을」, 오영교 외, 『觀瀾元昊硏究』제9권 (강원도 원주시, 2008)

4. 관란정과 원호 유허비

국어국문학과 20161114 홍예지

관란정과 원호 유허비는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56번지 강가 절벽에있는 조선시대의 비석과 정자이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9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의 절의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석과 정자이다. 유허비는 1665년에 세웠으며, 관란정은 건평 4평의 누각으로 1845년에 세운 것으로 1941년에 개축하였다.

관란정은 1941년,1970년과 1987년에 중건되었으며, 앞면 2칸과 옆면 2칸의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간결하게 짜여 있고, 기단은 자연 암반 위에 토단으로 하였으며, 주초는 정평주초로 하였다. 가구형식은 오량가이고, 단청은 모로단청이며, 공포형식은 주간에서는 이익공 식으로, 귀포에서는 삼익공 식으로 하였으며, 단청은 동향이다. 현재 원주 원씨 종중이 소유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란정은 홍양호가 세운 관란정 유허비와 나란히 위치해있다.

1457년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이후 관란은 영월 서쪽에 집을 지어 이름을 관란재라 했다.그리고 강가에 나가 시를 읊거나, 혹은 집에서 글을 짓기도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멀리서 영월 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임금을 사모했다고 한다.

관란정 내부에 있는 중수기는 후손 원석홍이 기록한 것으로 청령포에 머물러 있는 단종을 그리워한 관란을 기리면서 오래된 정자를 보수하고 기울어진 비석을 바로 세운 내용이 담겨 있다.

『관란유고』에 실려 있는 「관란정도」에는 관란정 현판이 왼편에 걸려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유허비가 세워져 있는 비각도 함께 그려져 있다. 관란정 옆에는 홍양호가 관란을 기며 세운 유허비가 자리해 있다. 유허비를 세운 홍양호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 초명은 양한, 자는 한사, 호는 이계이고, 홍만회의 중손이다.

《참고문헌》

이진형,「관란 원호 일생의 유흔(遺痕)을 찾다」, 오영교 외, 『觀瀾元昊硏究』제9권 (강원도 원주시, 2008)

2조 - 온달설화

1. 온달설화의 줄거리

인문학부 20171098 최세연

온달설화는 「삼국사기」의 「온달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의 사람으로서 겉모습은 꾀죄죄하고 우스웠지만 속마음은 맑았다. 집이 몹시 가난했고, 나무를 해서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찢어진 옷과 헤진 신발로 시장 사이를 왕래하여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 하였다. 평강왕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잘 울어 부왕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며 농담을 하곤 했다. 그로 인해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공주가 시집을 갈 나이가 되자 왕은 공주에게 맞는 신랑감을 찾았다.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상부 고씨에게 공주를 시집을 보내려 했으나, 공주는 어렸을 때 부왕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했으니 온달에게 시집을 간다고 말한다. 이에 부왕은 공주를 꾸짖으며 대궐 밖으로 내쫓았다. 쫓겨난 공주는 바보 온달을 찾아가는데, 온달은 집에 없고 그의 어머니만 있었다. 온달의 어머니는 눈이 멀었으나, 공주가 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눈치 채 돌려보내려고 했다. 이에 공주는 산으로 가 온달을 찾았으나, 온달 역시 그녀가 귀한 신분임을 눈치 챘고 자신과는 맞지 않는 상대라며 거절한다. 그러나 공주는 돌아가지 않고 기다림으로써 온달과 온달의 어머니를 설득해 혼인한다.

온달과 혼인한 공주는 온달에게 학문, 무예, 사냥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주가 가지고 온 예물을 팔아 살림을 차리고 말을 사도록 했다. 공주의 지혜로 비루한 말을 좋은 말로 키웠고, 온달의 무예, 사냥 실력은 날로 늘어갔다. 고구려에는 매년 사냥대회를 치렀는데, 잘 길러진 말을 타고 온달은 사냥대회에 나가 놀라운 실력을 보여 왕을 놀라게 하였다. 후주의 무제가 고구려 땅을 쳐들어왔는데, 왕이 군사를 이끌고 사산의 들판에서 맞서 싸웠다. 이때 온달이 선봉이 되어 수십 여 명의 목을 베니 온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 이기는 큰 업적을 쌓았다. 이에 왕이 아름답게 여겨 탄복하며 예를 갖추고 온달을 사위로 맞이하고 벼슬을 내려 대형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총영이 두텁고 위권이 날로 성대해졌다. 양강왕이 즉위했을 때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고구려 땅을 되찾아 오겠다며 군대를 요청하여 출병함에 임하기도 하였다. 이 때 온달은 계림현과 죽령의 서쪽이 고구려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떠난다. 신라와의 전투에서 온달은 열렬히 싸우지만 결국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만다. 그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지만 온달을 실은 관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평강공주가 와 눈물로 관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가야 할 때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관이 움직여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이기담.『온달, 바보가 된 고구려 귀족』. 푸른역사, 2000.

2. 온달설화와 온달산성

국어국문학과 20161016 김원목

온달산성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와 백자리 사이에 솟아 있는 성산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대 석축산성으로 1979년 7월 9일 사적 제 264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온달산성은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인 온달의 무용담이 이 지방에 전해 오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축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와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온달장군이 신라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쌓았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오고 있다. 성 안에서는 삼국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며, 우물터가 남아있고, 남서쪽 문터의 형식과 동문의 돌출부는 우리나라 고대 성곽에서 드물게 보이는 양식으로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유적이다.[1)]

온달산성은 조선시대의 지리지에서 성산고성, 고성 등으로 나타나 있고, 둘레는 1,523척(尺), 높이 11척(尺)에 우물 하나가 있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부터는 언전, 혹은 고노상전으로 온달이 축조한 전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현재 온달산성 북동쪽 아래에는 온달동굴이 있고, 온달과 관련한 관광단지가 마련되어있다. 온달동굴에서 온달산성으로 오르는 계곡 입구에는 성황당이 있어서 지금도 마을에서 신위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온달산성은 석축 성벽이 해발 454.5m의 정상부를 감아 북향한 완경사면을 타고 내려와 해발 390m 지점까지 두르고 있어서 남고북저의 형태를 띤다. 남문 터와 동문 터는 모두 작은 안부에 현문 식으로 되어있다. 성벽의 둘레는 682m이며, 체성의 높이는 최고 7,8m이다. 성벽 윗면의 너비는 3~5m로 일정하지 않다. 남쪽과 북쪽에 치성이 있으며, 북쪽 가장 낮은 곳에 수구가 있어서 사다리꼴 모양의 출수구가 널리 알려져 있다. 온달산성은 한강 상류에서 소백산맥을 남쪽으로 넘기 위한 지류와 계곡의 어귀에 자리하며, 남쪽에서 소맥산맥을 넘어 한강 남안에 이른 지점에 해당한다. 소백산맥에서 분기한 산줄기가 흘려내려 한강에 드리운 마지막 봉우리에서 석축 산성이 위치하고 있다.[2)]

온달문학을 연구해 온 이창식 교수는 '온달산성은 남한강 상류유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선 중에 하나다. 산성에 처음 올랐을 때 멀리 펼쳐진 영춘 일대의 남한강, 그 주변의 집과 길, 물과 숲이란 모조리 한 폭의 그림이었다. 강을 확보하기 위해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되풀이 했을 역사 속의 사람들. 그들의 숨소리가 온달문화유산 곳곳에 배어 있다는 것을 한 꺼풀씩 벗겨 볼 수 있었다.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굽이굽이 휘돌아 치닫는 남한강을 따라 발로 걸으며 역사의 이야기를 되살려 보았다. 때로는 사군문화(충청북도 북부지역 제천, 청풍, 단양, 영춘)라는 이름으로 고을마다 길이 난 곳이면 누비고 다녔다. 온달은 거기에 조용히 아주 소리 없이 웅크리고 앉아 여울에 감기는 물소리를 엿듣고 있었다. 남한강 물길 언저리에 구구절절한 온달의 이야기가 골골이 배어 있었다.'[3)]라며 온달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온달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단양군청,2008.
차용걸 외. 『온달산성: 北門址.北雉城.水口 試錐調査 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3.
이창식.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1)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온달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단양군청,2008) pp.19~21
2) 차용걸 외,『온달산성: 北門址.北雉城.水口 試錐調査 報告書』(충북대학교 박물관, 2003) p.
3) 이창식,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 (박이정, 2000) p.책머리에

3. 온달설화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21142 김기훈

<온달설화>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에 집필되어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의 의도는 안으로는 사회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과 밖으로는 투철한 국가의식을 강조함으로 후세에 권계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 중에서도 <온달전>은 열전에 입전된 기록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꼽혀왔다.

<온달전>은 설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두 남녀 간의 결연담이 현실적인 면에서 벗어나 허구성을 보인다. 그리고 공주와 혼인 이후 일정한 통과의례를 거쳐 입신양명하는 전체적인 과정은 선행을 행한다면 복을 받는다는 당대인의 세계관이 나타나 있다. 동시에 낮은 피지배계층의 신분상승에 대한 염원이 신데렐라적 모티프로써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이하게도 온달이라는 남성의 주인공을 여성 주인공인 평강공주가 보필하고 변화시켜 입신양명 시킨다는 대목은 유교적 성리가 널리 퍼져있던 당대 고려의 여성상과는 다르게 조금은 진보한 여성상을 보여준다. 여성이 직접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지는 않지만, 남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진출을 한 것 이다.

온달의 비극적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기이한 행적은 민간전승의 설화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민간전승의 설화적 요소의 삽입은 김부식의 엄격한 유교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무속적 세계관과 비극적 숭고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온달전>은 특이하게도 역사적 기록이라는 특성과 함께 민간에서 전승되던 민담의 수용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 또한 온달전은 장수 온달이 미천한 신분에서 왕의 사위로 인정받고 권세를 얻는 행복한 결말로 끝내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비극적인 결말로써 끝냄으로 비극적 온달의 삶을 통해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상무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의도이다.[4] <삼국사기> 집필 당시, 당대의 고려는 크고 작은 반란이 진압되고 문벌귀족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고 국가적 가치를 다지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하였을 것이다. 고로 <온달전>은 국민의 일치단결과 신하들의 충절을 고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렇듯 <온달전>은 가벼운 설화가 아닌 당대의 시대상과 새로운 여성상을 반영하고, 정치적 목적이 혼합된 설화이다. 기존의 설화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온달전>은 매우 문학사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평가 할 수 있다.[5]

《참고문헌》

조면희. 『온달이야기 外』. 현암사, 2001.
최지선. 「온달 설화의 전승과 수용」.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4) 조면희, 『온달이야기』(현암사, 2001) pp.7~8, 47~48
5) 최지선, 「온달 설화의 전승과 수용」(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pp.11~55

4. 온달설화의 인물

국어국문학과 20131114 박상우

온달설화의 인물로는 바보온달, 울보 공주, 눈먼 어미의 세 인물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온달은 아주 하찮은 걸인(乞人)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온달을 '바보온달' 라고 부르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온달을 특이한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온달처럼 걸인인 사람이 많았을 텐데, '온달'이라는 존재를 국왕을 포함하여 공주마저 알았기 때문이다.

온달은 바보가 아니라 특이한 존재였다는 것은 작품이 진행되면서 점차 뚜렷해진다. 온달은 궁을 뛰쳐나온 공주가 산으로 찾아와서 그 내력을 이야기하자 어린 공주를 합리적인 언변으로 꾸짖고 설득한다. 이런 온달의 모습은 총명하고 지성적이다. 어디에도 바보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보통 사람 이상의 인간임을 알 수 있다.[6] 또한 평강공주가 온달과 결연하려고 찾아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분명 작품 속에서 보이는 평강공주는 주체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 그녀가 어릴 적 왕이 했던 말을 믿고 온달과 결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주의 가르침으로 결국 장군이 되는 점도 아이러니하다. 온달이 공주와의 결연을 통해서 대저택을 갖게 되고 노비를 소유하게 되고 말을 살 수 있었다는 것과 사냥을 잘했다고 장수가 되는 점을 볼 때 온달은 바보가 아니라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 이상의 능력을 가졌을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달은 몰락한 귀족의 신분으로 혼인이 약속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공주와 왕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대화와 공주가 온달과 온달모에게 이야기를 갖추어 하는 장면에서 두 집안은 예전부터 친분관계에 있었고 혼인이 약속된 관계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몰락 귀족의 신분인 온달이 왜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자신들처럼 평민이 아니면서 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온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평강공주는 작품 서두에서 어린 공주의 모습으로 항상 우는 철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묘사와 달리, 점차 작품이 진행되면서 공주는 온달에게 시집가라는 말을 바꾼 국왕에게 항변하는 모습이나, 공주라는 신분을 마다하고 온달과 결합하기 위해 혼자 궁에서 나온 행동, 그리고 온달과 온달모를 설득하는 장면, 온달을 입신양명으로 만드는 모습, 또한 온달의 죽음에서 보여주는 대담한 모습 등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기에 '울보공주'로서의 외형적 이미지는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셈이다.

이 두 인물 외에 온달 모는 장애를 갖고 있는, 극히 비정상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온달 모는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찾아온 공주의 신분을 쉽게 알아보는 예지를 보인다. 그리고 온달과 결연하러 온 공주에게 그 부당함을 합리적으로 말하는 모습에서 그녀는 일반 민간의 하찮은 여자가 아니라 식견과 합리성을 소유한 인물임을 예고해준다.[7] 이런 온달모의 언변을 보면, 온달은 평범한 평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온달전」에 나오는 주요 인물의 존재는 문면에 드러난 외형적 묘사와 달리 정반대의 성격과 선명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온달'과 '온달 모'는 가난한 일반 평민의 신분이 아니라 일정한 신분을 지닌 몰락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6) 진재교,「삼국사기 열전 분석의 한 시각」『한국문학연구』특집호, (한국한문학회,1996) pp.310~311
7) 진재교, 같은 논문, 312쪽.

《참고문헌》

진재교.「삼국사기 열전 분석의 한 시각」『한국문학연구』 특집호 한국한문학회, 1996 .

5. 온달설화에 대한 해석

인문학부 20171037 박은선

온달설화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 해석되고 있다. 온달설화에 관련된 해석은 방향을 달리하여 두 가지 방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온달을 역사 자료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여 당대 고구려 사회의 어떤 변화와 동태를 찾아내고자 한 것이다. 당대 고구려 사회는 중국의 수나라의 침략에 의한 전쟁에서 고구려의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후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내분에 의해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을 한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상류지역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출정하던 때는 고구려의 세력이 약화되어 가는 도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위와 질서가 와해되는 혼돈의 세상 같은 소멸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에 민중은 영웅의 출현, 새로운 시조의 탄생을 기원하게 될 것이다. 온달은 새로운 힘을 탄생시킬 수 있는 신이성을 가진 영웅으로 설화 속에 등장한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 얻어 어머니를 봉양하는 온달이라는 인물묘사의 이면에는 새로운 에너지의 분출을 기다리는 민중의 기대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온달을 통해 6세기 고구려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시점이다.[8)]

다른 한 시점은 문학적 가치를 수용하여 설화적 작품으로서 온달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남녀 간 결연담의 흥미성과 온달이라는 인물의 성공담에 주목한다. 이것은 현실적 행복에 대한 추구와 이야기적 재미에 치중되는 속성을 보여준다. 단지 서사적 줄거리를 바탕으로 온달설화의 내용 분석 및 그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온달설화와 신라 공주와 결혼한 백제 '서동'의 이야기를 연관 지어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두 이야기는 여주인공이 아버지에게 쫓겨나와 배우자와 만나는 삽화는 일치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 갈등양상과 결말이 차이가 나고 주제의식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따르면 서동은 평민의 아들이지만 중국의 서적인 북사에 따르면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나타나 있다. 이는 서동이 비범한 태생의 출신임을 나타내거나 정말 왕실의 적통이 아닌 비적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온달설화와 서동설화가 모두 집을 나온 여인이 미천한 남편을 성공시킨다는데 초점을 둔다면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9)]

《참고문헌》

최현정, 「온달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2007)

8) 최현정, 「온달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2007)
9)丁昭榮(Jung Soyoung), 『한국언어문학 제57집』(한국언어문학회, 2006)

3조 - 김삿갓과 한시

1. 김삿갓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51131 정현아

김삿갓은 안동 김씨 휴암공파 24대 손인 김안근과 함평 이씨 사이에 차남으로 1807년 3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병연이고 자는 성심(性深), 호는 난고(蘭皐)이다. 립(笠) 또는 삿갓이 그의 별칭이다.

1811년 11월, 서북 사람의 중용을 금한 데에 불만을 품은 홍경래의 난 때 선천 방어사였던 할아버지 김익순이 홍경래군에 포로가 되어 항복을 한 뒤 이듬해인 1812년 2월 홍경래의 난이 평정되자 할아버지는 대역죄로 참형을 당했다. 그의 할머니는 관가의 노비로 전락한 뒤 같은 해에 세상을 뜬다. 김병연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당시 여섯 살 이었던 김병연은 그의 형 김병하와 함께 황해도 곡산에 있는 종복 김성수의 집에 맡겨져 어린 시절의 한때를 보낸다.

그러나 할아버지 김익순에 대한 문제는 김익순 본인에게만 묻고 가문을 폐문한다는 조정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부모와 함께 경기도 여주, 광주, 가평을 전전하다가 강원도 영월읍 삼옥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김병연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으나 떳떳한 사대부로는 지낼 수 없었다. 반역죄로 할아버지가 참형을 당했고 집안이 폐적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산속 깊은 곳에서 권문세족임을 밝힐 수 없이 살아가야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월에서도 가장 인적이 드문 곳을 택하여 생활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가의 기풍과 안목을 갖춘 김병연의 어머니 함평 이씨는 김병연과 그의 형 김병하에게 글을 가르쳤다. 가문에 내력에 대한 진상을 알지 못한 채 학업에만 정진을 해온 김병연은 훗날 영월 도호부 과거 백일장에 응시하여 "論政嘉山忠節死金益淳罪通于天" “론정가산 충절사 김익순죄통 간천” 이라는 시제 아래 장원급제를 하였다.

위와 같이 뛰어난 글 솜씨로 장원급제를 하게 된 난고 김병연은 어머니로부터 집안 내력에 대한 일들을 전해 듣고 조상을 욕 되게 한 죄인이라는 자책감, 대역 죄인의 손자라는 마음의 상처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 같은 이유로 인해 20세 무렵에 처자식을 둔 채 방랑의 길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난고 김병연은 죄인 의식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하여 삿갓에 죽장을 짚은 채 방랑생활을 시작하였다. 금강산 유람으로 방랑의 시작을 삼으며 서울, 함경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등 우리나라 팔도강산을 돌았으며 도산서원 아랫마을과 황해도 곡산등지에서 몇 해 동안 훈장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1863년 3월 29일 57세의 나이에 전라도 화순군 동복면 귀암리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866년, 뒤늦게 아버지의 운명 소식을 접한 아들 김익균이 김병연의 유해를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로 옮겼다.

《참고 문헌》
이창기, 『김삿갓이라 불리는 사내: 시인 김병연』, 도서출판 하늘아래(2003), 174-176쪽
정대구,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1990), 133-137쪽

2. 김삿갓의 작품 활동

인문학부 20171045 변지현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연이다. 삿갓을 쓰고 다니는 모습 때문에 김삿갓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가 삿갓을 쓰고 다니는 이유는 그의 조부로부터 시작된다.

그에게는 조부 김익순이 있었는데, 김익순은 홍경래의 난에서 적에게 항복하고 적을 위해 협력하며 남의 공을 빼앗아 대역죄를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김병연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다행히 김병연은 목숨을 구했으나, 황해도 곡산에 있는 종의 집에서 피해 살며 앞날을 기약하였다.

김병연이 20세가 되던 해에 그는 자신의 조부가 김익순임을 모른 채 〈논정가산충절사탄김익순죄통우천 論鄭嘉山忠節死嘆金益淳罪通于天〉이라는 시제로 백일장에 응시하여 장원하였다. 하지만 후에 자신의 내력을 듣고 조상을 욕되게 한 죄를 자책하며 처자식을 두고 방랑의 길을 올랐다. 그가 삿갓을 쓴 이유도 여기 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여 스스로가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에 삿갓을 쓴 채로 방랑생활을 하였다.

그는 삿갓을 쓰고 전국을 유랑하였으며,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많은 시를 남겼다. 그가 전국각지를 돌아다닌 만큼 그의 시는 널리 흩어져 있었다. 더불어 그의 시는 민중성이 강하여 많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그는 57세의 나이로 객사 할 때까지 전국각지를 돌며 방랑생활을 하였다. 말년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의 적벽에 매료되어 방랑을 멈추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시는 그의 생활만큼이나 굉장히 자유롭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시를 표현하여 민중이 따라 읽기 쉬운 시와 풍자의 형식을 사용하여 해학성을 보여주는 시뿐만 아니라 한글을 섞어 시를 쓴다든지, 한시를 음이 아닌 뜻으로 읽게 하며 한시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은 시들이 많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자료로 『김립 시집』이 있다. 이는 소설가 이응수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흩어져있던 김병연의 시를 모으고 정리하여 그가 죽은 지 76년이 지난 1993년에 엮어낸 김병연의 첫 시집이다. 그는 1천여 편의 시를 쓴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까지 456편의 시가 전해지고 있고 『김립 시집』에는 340여 수의 시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모투강제음(暮投江濟吟)』, 『과음 경계(過飮 警戒)』, 『간빈(艱貧)』과 같은 시에서는 그의 사상과 정신을 찾아볼 수 있고, 『(天脫冠)』, 『원생원(元生員)』에서는 그의 풍자와 해학이 돋보임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 띄워 놓고 술에 취하여』, 『씨아』, 『매아』와 같은 시에서는 그의 낙천성과 실사구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참고 문헌》
이창기, 『김삿갓이라 불리는 사내: 시인 김병연』, 도서출판 하늘아래(2003), 124-137쪽
양기원, 『김삿갓 이야기』, 학민사(1994), 24-38쪽
정대구,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1990), 28-31쪽

3. 김병연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61076 이제영

조선 봉건사회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다 간 시인인 김병연의 시는 전통적인 한시에 비하여 파격적인 풍자와 해학을 담고 있다.

18세기 전후부터 19세기 말에 이르는 조선 후기 사회는 내면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감에 따라 사회의 기강이 크게 흔들렸으며. 신분사회의 변혁이 부지불식간에 진행되고 있었다. 즉 오랜 전통의 유교적 윤리와 가치 기준이 흔들리던 전환기였다고 볼 수 있다. 실력보다는 금력(金力)과 권력이 당락을 좌우하던 시기로 과거 제도는 극도로 문란한 상태였고 양반 지식인들은 전국을 유랑하면서 해학이나 풍자를 방편으로 삶을 이어 갔다. 권문세족이지만 방랑의 길을 선택한 김병연도 마찬가지였으며, 당시의 상황에서 관료나 지주로서의 기반을 상실한 그들은 현실의 부적응자이기도 하였다.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싹튼 이유는 일종의 야유로 표출되었던 의식과 현실이 부합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일반 민중과 호흡을 같이 한 김병연의 해학과 풍자는 숱한 일화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방랑시인 김삿갓은 30년간 유랑하면서 시를 썼는데 김삿갓의 시는 대부분 촌노와 학동의 붓과 입으로 전해진 구비문학적 성격을 지닌다. 1939년 이응수가 김병연의 시를 모아 『김립시집(金笠詩集)』을 간행하였다.『김립시집(金笠詩集)』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학적이고 생동감 있게 형상화되어있는데 이것들이 김삿갓의 시풍이며 그의 시가 지니는 민중성, 해학성, 파격성이 그의 기행에 편승하여 더욱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19세기 초에 나서 19세기 중엽까지 살다가 간 김삿갓은 봉건 말기적 붕괴의 위기와 사회적 모순에서 남다른 운명의 자기체험으로 견고한 한시의 규범을 파괴했던 시인이다. 물론 처음부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고 타설적인 규범으로 수련을 쌓은 당당한 정통한시의 실력 위에서 시대적 추의와 시인의 독특한 시적 체험이 결합하여 그와 같은 파격시가 가능할 수 있었다. 김삿갓 시의 특성은 민중성, 파격성, 해학성, 그리고 복수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는 한시의 평민화 경향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민중적인 차원으로까지 한시의 체질을 개혁하였고 한시 표기에서도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또 이에 성공함으로써 권위주의로서의 한시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골계미와 해학미라는 새로운 미학으로 한시의 지평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이 지평은 곧 개화기로 계승, 발전하여 우리 문학사상 개화기 시가라는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게 된다. 김삿갓의 한시 파괴와 변형은 결과론적으로 스스로 한시를 파괴하는 이단자가 되면서까지 시조와는 또 다른 한글시의 초기적 징후를 태동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김삿갓 한시의 구조적 특징점은 정통한시에 있지 않고 평칙이나 운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성에 있다. 즉 김삿갓의 다양한 파격시를 계기로 한국 문화기에서 한글문화기로 옮아가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참고 문헌》
이창기, 『김삿갓이라 불리는 사내: 시인 김병연』, 도서출판 하늘아래(2003), 198-200쪽
정대구,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1990), 193-195쪽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의 유산』, 영월군(1992), 34-38쪽
정공채, 『오늘은 어찌 하랴: 김삿갓 시와 인생』, 학원사(1985), 268-273쪽

4.유적지

인문학부 20171104 하민아

1) 김삿갓 묘역

그가 죽장에 삿갓 쓰고 미투리 신고 산수를 넘나들며 해학과 풍자로 한세상을 떠돌던 방랑 시인인 줄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뜬 구름 같고 바람 같았던 그의 삶의 궤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묘소가 발견된 것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는데 1982년 영월의 향토 사학자 박영국의 노력으로 영월읍 와석리에서 그의 묘소가 확인되었다.

2) 김삿갓 계곡

김삿갓 계곡은 김삿갓이 생전에 "무릉계"라 칭했을 만큼 빼어난 경치를 지녔다.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오염이 안 되고 보존이 잘 되어 청정지대임을 자랑한다.
인근 내리계곡의 크낙새와 법흥사 적별 보 궁 길의 딱따구리, 그 외 동강과 서강이 기암을 돌아 흐르는 곳에 사는 수달, 수리부엉이, 비오리, 검독수리, 작은 소쩍새, 올빼미, 황조롱이, 오리 떼 등은 이 지역이 과연 있는 그대로의 생태박물관임을 입증한다.

3) 김삿갓 문학관

김삿갓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정암 박영국 선생의 연구자료 및 유물뿐 아니라 금옥(金玉), 황녹차집(黃綠此集), 동국시(東國詩),필휴집(必攜集),행동시선(海東詩選),대동기문(大東奇聞),대동시선(大東詩選) 등 김삿갓과 관련된 서적이 전시되어 있고, 김삿갓의 생애를 상영하여 파란만장했던 김삿갓의 생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일대기실에서는 김삿갓의 출생, 성장, 사망 과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김삿갓 주거지 복원 모형, 김삿갓 가계도, 김삿갓 시, 방랑생활 당시 지었던 시 등이 전시되어 있다.

《참고 문헌》

영월군, 『김삿갓의 유산』, 강원도영월군청(1992)
난고 김삿갓 문학관 : http://ywmuseum.com/museum/index.do?museum_no=7
사진 출처 : 한국관광공사

4조 - 이효석

1. 가산 이효석의 생애

인문학부 20171116 홍찬영

가산 이효석은 1907년 2월 23일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 68번지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모친을 여읜 그는 부친의 뜻에 따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평창국민학교에서 6년동안 하숙했고 그 이후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일은 없다. 평창공립 보통학교과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를 들어간 그는 원래 전공이던 법학과 대신 영어영문학과를 전공과목으로 택하였다. 몇 개의 단편과 시나리오 한 편을 '중외일보'에 실으면서 창작활동에 뛰어든 그는 1928년에 '조선지광'에 단편 작품을 발표하면서부터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1930년 경성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그는 이때부터 동반작가-공산주의 혁명운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동조적인 입장을 취한 문학작가들-로 데뷔하면서 '깨뜨려진 홍등'을 시작으로 좌익정신과 관련된 많은 작품을 쏟아냈다. 그러나 대학 졸업이후 작가로서의 수입이 없었던 그는 생활고로 인해 직업을 찾기 위해 애썼고 결국 1931년경 총독부 경무국 검열계로 취직했다. 그러나 주위의 지탄과 자괴감으로 인해 경무국 일을 그만두었고 한동안 창작활동을 멈췄다. 그래도 이때 이후 그의 작품들에는 좌익이념을 어느 정도 탈피하며 서서히 순수문학 쪽으로 갈피를 잡게 되었다.

1931년 이경원과 결혼한 그는 1932년 그의 부인의 교향인 함경북도 경성으로 내려가서 경성농업학교 영어교사로 취직하여 안정된 생활을 살게 되었다. 그 후 1934년 평양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이 시기는 그의 창작의욕이 떨어진 시기이자 창작경향이 바뀌기 시작한 시기이다. 1933년 '돈'을 발표하기 전까지 그럴듯한 작품을 쓰지 못하던 그한테서 이 '돈'이라는 작품은 그가 그동안 보여줬던 좌익이념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서 그가 어느 정도 순수문학을 지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절 그는 장녀인 나미를 얻었다.

1934년부터 1940년까지 6년 동안은 그의 작가생활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다. '분녀' '산' '들' '고사리' '메밀꽃 필 무렵' 등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효석의 작품들의 대다수가 이 시기에 쓰인 것이다. 그러나 이후 1938년 숭실전문학교가 폐교되어 직업을 잃었지만 단순히 교수직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강제로 일제의 침략을 지지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 이유는 일제에 의해 창씨개명 및 조선어 말살정책이 실행되던 때, 일제는 그한테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도움이 되는 글을 쓰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1940년 초반 그도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친일 문학'이라 불리는 글들을 몇 편 쓰기도 했다.

1938년 숭실전문학교의 폐교로 인해 그는 1939년 대동공업전문학교의 교수로 취임했지만 1940년 부인 이경원과 사별하게 되면서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 재혼을 하지 않은 그는 이후 별다른 작품을 쓰지 못했다.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결핵성 뇌막염에 걸리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의료수준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결국 1942년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참고 문헌》

이효석 문학과 생애. 이상옥. 민음사. 1992

2. 이효석의 문학사적 의의

인문학부 20171047 서한별

가산 이효석(1907~1942)은 서른여섯 살에 요절한 짧은 생애지만, 두 편의 장편 소설과 수십 편의 단편 소설, 시, 희곡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에 도전함으로써 자신의 글쓰기 욕망을 표출한 한국 문학사에서 흔치 않은 독특한 개성을 간직한 작가이다. 초기 작품에는 경향 문학 작품을 발표하다 점차 자연과의 교감을 묘사한 서정적인 작품을 발표하여 당대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이효석에 관한 연구는 그 대상이 '메밀꽃 필 무렵' 등 일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에 제한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작품의 문체나 기법, 미적 가치의 탐구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왔다. 자연과 인간 본능의 순수성을 글로 형상화해내는 향토성이 짙은 작품으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효석 소설에 나타나는 자연은 반문명적, 반사회적, 축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문명이나 사회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근거로 시작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성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와 단절을 의미하는 동시에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던 성에 대한 의식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효석의 성 이데올로기를 특징짓는 것은 심미주의적 경향이다. 초기 작품부터 드러나고 있는 탐미적 성향 및 도덕적 퇴폐주의는 이효석 소설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소설의 에로티시즘은 그의 자연주의와 함께 사회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는 성이 하나의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보다는 사회적 규범과 막힌 상황으로부터 현실을 잊고 도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효석 소설의 문학적 성취는 그 언어와 문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묘사와 대화에 의한 장면의 제시와 고백적인 서술로 그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과 참신하고 세련된 비유가 빈번하게 나타난 작품이 시적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효석 소설에 드러나는 이러한 비유는 토속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구적 지성의 세련된 감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분히 서구적 감성으로 빚어진 서정적인 감성과 성을 통한 생명의 신비적 추구를 본질로 잡은 이효석 소설은 자연에 던져진 인간성의 원형을 세련된 미의식의 문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30년대 단편소설의 모범을 보였지만, 이효석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은 인간이 돌아가 의지할 삶과 존재의 근원이라기보다 현실도피의 한 방편으로 원용되고 있다는 한계에 이르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이효석의 서구에의 동경 체질에 근거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옥, 『이효석-문학과 생애』, 믿음사 ,1992
구인환, 『한국현대문학의 비평적 연구』, 삼지원, 1997
유종은, 『이효석』, 벽화 출판사 , 1993
한국문에 연구소 , 『가산 이효석의 삶과 문학세계』, 2008

3. 이효석의 작품세계

이효석의 작품세계는 그의 거주 공간이 이동함에 따라 바뀌어갔다. 이효석의 생애에 나타나는 지리적 공간은 문학 작품 속에서 공간 그 이상의 의미이다. 그는 사는 곳의 위치가 바뀔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갔고 점차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작품 속에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도시를 환멸의 공간으로 묘사하며 억압, 궁핍, 불평 등 식민지 근대 조선의 우울함을 담은 작품은 주로 초기 작품에만 나타난다.

이효석의 작품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심미주의이다. 이효석은 계급의식의 강박을 벗으면서 이념, 역사, 진보성을 함께 벗고 서정, 관능, 심미성을 자품에서 많이 나타냈다. 특히, 심미주의는 그가 추종하던 이념이나 행동 노선으로부터의 도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세계의 본질적인 성격이다. 이효석의 작품에서는 많은 주인공들이 현실 도피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간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았다. 그는 자신의 부정적인 인간관에 대해 체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관을 바꾸는 길을 창작행위에서 찾았다. 그는 이러한 창작을 통해 인간의 부정적 상황을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한 현실주의, 동경, 추구 등을 작품에 나타내면서도 묘사를 감각적이고 시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한쪽을 추의 세계로 묘사하였으면 다른 쪽을 미의 세계로 묘사하여 대립적 이미지로 미적 긴장을 유발하였다. 이효석은 <심미감>과 <쾌의 감동>을 찾는 일이 소설가의 임무라고 생각하였으며 한 작가로서 내세운 궁극적 문학관이다.

그의 작품세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고향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다. 이효석에게 향토적 세계는 고향의 향수를 담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구절은 잃어버린 고향을 찾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이 작품 외에 <화분>이나 <벽공무한>등의 작품에서도 커피 원두, 클래식 음악 등을 가지고도 향수의 대상으로 소설 속에서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식욕과 동일시되는 성욕을 부정했다. 그는 성욕을 패션의 세련성에 입각한 매혹으로 볼 때만 긍정하였다. 그가 말하는 매혹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공간의 환상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성의 의욕과 같은 것을 타락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서는 식욕, 성욕을 동일시하는 여성은 타락한 것으로 표현하였으나 <북국점경>에서는 ‘능금‘을 아름다움을 집약한 대상으로 나타내었다.

《참고 문헌》
문학과사상연구회, 『이효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12)
이상옥, 『이효석』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한국문예연구소, 『가산 이효석의 삶과 문학세계』 (학고방, 2008)

4. 이효석의 대표작품

국어국문학과 20131140 허선호

이효석의 작품세계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향수의 문학이라고 본다. 그 지향은 안으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밖으로는 이국, 특히 유럽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난다. 전자에 대한 예로 <메밀꽃 필 무렵>에서 고향의 산천을 무대로 한 향토적인 정서표현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후자에 대한 예로는 <들> <분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 자체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적인 것을 추구하는 원초적 에로티시즘으로 나타난다. 특히 후자는 서구적인 것에 대한 동경으로서 현대문명과 자유를 갈망하는 지향하는 것으로 보아, 동경의 세계를 서정적 문체로 연결시켜 이효석 작가 특유의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효석 작가의 대표작품은 <메밀꽃 필 무렵>이다. 이 작품은 1936년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한 여인과 맺은 단 한 번의 사랑의 추억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장을 떠돌았던 한 장돌뱅이 생활의 애환을 통해 삶의 한 단면을 나타낸 소설이다. 이 작품 안에는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친자 확인이라는 두 가지 줄기를 이룬다. 이 이야기 속에는 '길'이 등장한다. 이 '길'은 허 생원 일행에게는 생업의 길목이지만, 괴로운 인생사의 길이 아닌 삶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세계이다.

이 작품은 줄거리뿐만 아니라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본능적 애욕을 병치시킨 구성 방식에 있다. 허 생원이 술집에 들어가 충주 집을 탐내고 있을 때, 그의 당나귀는 암놈을 보고 발정을 한다. 또한 메밀꽃이 하얗게 핀 달밤에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 한 번 정을 통한다. 평생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였다. 허 생원이 처녀에게 잉태시킨 것처럼 당나귀는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새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당나귀의 까스러진 목 뒤 털, 개진개진 젖은 눈은 허 생원의 외양과 흡사하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소설은 세련된 언어와 낭만적 정서를 가진 특징을 볼 수 있다. 세련된 언어로는 '궁싯거리다', '칩칩스럽다', '농탕치다' 등의 다채로운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낭만적 정서를 나타내는 장면으로는 허 생원 일행이 달밤에 걸어가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장면은 언어 예술의 한 진경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설 전적으로 낭만적 정서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시골 장터의 풍경 묘사, 주인공 허 생원을 닮은 나귀 묘사 등은 뚜렷한 사실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련된 언어의 사용, 낭만적 정서와 사실성을 나타낸 묘사를 통해 독자를 소설 속으로 잘 이끌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신원영 『메밀꽃 필 무렵』,신원문화사,1976 pp08-19

5. 이효석 문학관

국어국문학과 20161081 임무혁

이효석 문학관은 이효석의 고향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립 시기는 2002년이다. 이효석의 삶과 작품 세계를 전반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실과 문학 교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실은 10여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이효석 문학관은 아름다운 외관으로도 유명한데 여러 산책로들도 있다.

전시실의 10개 주제는 1)이효석 연보 2)자연인 이효석의 삶 3)봉평장터 재현 4)창작실 안내 5)가산의 문학세계 6)이효석 문학지도 7)이효석과 평창 8)소설 <메밀꽃 필 무렵> 9)추모사업 및 효석 문화제 10)동반자 작가와 구인회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관에서는 <벽공무한>, <오월의 하늘> 등 이효석의 육필원고와 사진 등 여러 소장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자료를 기증하거나 구매도 할 수 있다. 구입 및 기증 항목은 사진, 유품, 신문, 현대문학사 관련 단행본, 잡지, 논문집 등이 있다.

이효석 문학관 홈페이지는 “가산 이효석 선생은 우리나라 현대 단편문학의 대표작인 <메밀꽃 필 무렵> 의 작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문체와 완벽한 구조, 뛰어난 문학적 상징 등 소설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한국 현대문학의 백미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산 이효석 선생이 태어나 자랐고, <메밀꽃 필 무렵> 의 배경지인 봉평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평에는 이효석 선생의 문학세계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어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몇 년 동안 봉평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이효석 문학관>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문학의 소중함과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문학 세계의 깊이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선생이 태어난 우리 봉평에 조그만 문학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문학관에는 선생의 육필원고나 사진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의 작품에 나오듯 소금을 뿌린 듯한 메밀밭 언저리에 앉아 문학의 향기에 젖어 보시기 바랍니다.”며 인사말을 적어두었다.

이효석 문학관에서 주최하는 <이효석 문학상>이 있다. 가산 이효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효석 문학상>이라 칭한다고 한다. 우리 문학사에 길이 빛나는 소설을 창작함으로서 우리 문학사를 발전시키고 서정적인 작품으로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킨 가산 이효석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뜻으로 <이효석 문학상>을 제정하고, 매년 탁월한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을 시상함으로써,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 문헌》

이효석 문학관 홈페이지 : http://www.hyoseok.org/main/main.asp

5조 - 허균, 허난설헌

1.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51129 장은영

1) 허균의 생애

1569년에서 1618년까지 살다간 허균의 생애는 크게 두 시기로 나뉘게 되는데, 곧 마흔 살이 되기 전의 전반기와 마흔 살부터 죽을 때까지의 후반기로 구분된다. 그는 마흔 살이 되기 전에는 현실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글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듯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불만을 토로하거나 했다면, 이후에는 대북파의 정권에 참여하여 지배세력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반역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지탄을 받거나 과감한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허균은 선조 2년 병자월 임신일에 서울의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건천동은 높은 벼슬아치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던 곳이었다. 그는 다섯 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아홉 살 때엔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았다고 한다. 1580년 허균이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는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배우기 시작했다. 일찍이 문장에 뛰어나, 그때에 삼당 시인의 한 사람으로 꼽혀 최경창, 백광훈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허균은 '글은 뜻이 통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글자를 빌려 의사를 표현할 때에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래서인지 언문이라고 하여 천대받던 한글로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맨 처음 쓴 사람으로서 우리 국문학사에서는 높이 평가되어왔다.

그래서 『홍길동전』의 작가로서 그의 생애나 문학의 배경 같은 것이 이야기되어왔다. 허균이 반역에 연루되었음에도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홍길동전』 때문이었고 또 획일성에 반기를 든 그의 다양한 사상 때문이었다.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리와 모순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는 시대의 선구자임에 틀림이 없다.

2) 허난설헌의 생애

허난설헌은 1563년 강릉 초당리에 있는 집에서 고려 말의 유명한 재상 문경공 허공 선조의 혈통을 이어 선조 때 석학이었던 초당 허엽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나며 특히 글재주가 뛰어나 8세에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을 지은 뒤 여신동이라고까지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에게 과거를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문을 가르치지 않았다. 하지만 난설헌은 오라비가 글을 읽는 어깨 너머로 글을 배워나갔다.

이후 허난설헌은 14세에 김성립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규원가』에서 크게 나타난다. 또, 난설헌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녀의 유약한 체질을 타고 났는지 두 자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다. 두 자녀를 어려서 잃은 그녀의 슬픔과 한은 『곡자哭子』라는 시에 잘 드러나 있다.

1585년 봄, 난설헌은 상을 당해 외삼촌댁에서 묵게 되었다. 이때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던 외삼촌 김양이 세상을 떠나 장례를 지내러 왔던 듯하다. 난설헌이 머물렀다는 외삼촌댁은 두 군데인데, 그 중 애일당에서 난설헌은 수평선을 바라보기도 하고, 반곡서원에 들어오며 폭포를 바라보기도 했다. 남편도 없는 서울 시집살이에 시달렸던 난설헌은 고향 강릉에 돌아와 마치 선계 같다고 느껴 『몽유광상산시서夢遊廣桑山詩序』를 지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27세에 세

상을 떠난 것이라고 예언하는 시까지 지었는데, 4년 뒤 그 나이가 되자 과연 세상을 떠났다.

《참고문헌》
이이화, 『허균』, 한길사, 1997
허미자, 『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2. 일화

국어국문학과 20121119 박정현

1) 허균의 일화

허균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알려주는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허균의 '조관기행'을 보면 그는 기생을 가리지 않고 사귀었으며 많은 여인을 섭렵한 것을 마치 자랑처럼 여긴 사내다. 그의 문집 <성소부부고> 18권에 수록된 '조관기행'에 실린 글들을 보면 솔직하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꾸밈도 없이 그저 그때 감정을 아주 솔직히 적어 놓은 것이다. 1608년 4월 7일 허균이 친구 이재영과 함께 중국 사신을 맞이하러 의주에 당도했을 때, 의주 군청 문 앞에 기생들이 줄을 지어 두 사람을 맞이했는데 허균은 그때 풍경을

'의주를 방문한 것이 4년 동안 3번이라, 기생들 모두 낯이 익는데
그들도 반가운지 웃음꽃이 함박이다. 그런데 지나가며 잠자리를 함께한 여인들과
눈인사를 나누는데 모두 12이나 되었다.'

이런 자유분방한 허균은 기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 허균의 평가는 한편으로 가혹하다. 후배 문인들은 허균의 문집을 읽은 뒤 그를 유학자라기보다는 경망스러운 기방의 난봉꾼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고루한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탈과 자유를 추구하던 사고를 가진 것이 <홍길동전>을 쓰게끔 밑바탕을 깔아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허난설헌의 일화

허난설헌은 '세 가지 한'을 지니고 있었다 한다. 하나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 두 번째는 남편 김성립과 결혼한 것, 세 번째는 조선 땅에 태어난 것이다. 이 중 두 번째 한의 주인공인 김성립과의 혼인에 대한 일화가 있다. 허난설헌은 김성립과 약혼을 하게 되자 자신이 신랑감을 직접 보지 않고는 시집을 갈 수 없으니 집으로 데려오면 자신이 보고 결정하겠다고 아버지 허엽에게 부탁했다. 그 후 허엽은 신랑의 집에 가서 사윗감을 본 후 신랑의 아버지인 김첨과 담소를 나누려는데 심부름꾼 아이가 들어왔다. 이 심부름꾼 아이를 자세히 본 허엽은 그 아이가 허난설헌이 남장을 하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허엽이 놀랄 겨를도 없이 재빨리 그 곳을 빠져나온 허난설헌은 아버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일화로 허난설헌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해서 주체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남편 김성립에 대한 일화가 있다. 김성립에게는 익살맞은 송도남이란 친구가 있었다. 송도남은 김성립의 집에 찾아와서는 언제나 "멍석닙이 덕석닙이 김성닙이 있느냐"라고 김성립의 이름에 운을 맞추어서 불러대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김성립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면서 나오곤 하였다. 남편의 이런 주변머리 없는 모습이 딱해 보였던 허난설헌이 하루는 남편에게 송도남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일러주었다. 다음에 송도남이 오자, 김성립은 허난설헌이 일러준 대로 "오냐, 귀뚜라미 맨드라미 송도람이 왔구나"라고 응수했다. 친구가 웃으면서 "자네 부인이 가르쳐준 모양이지?"라고 넘겨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처럼 허난설헌의 문학적 재능과 이와 같은 재치는 주변머리 없는 남편 김성립과 대비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김용관, 『허균, 길에서 살며 사랑하다 죽다』, 부글북스, 2009, pp.64-66
박혜숙, 『허난설헌』, 건국 대학교 출판부, 2008, pp.131-138

3. 작품활동

국어국문학과 20161086 임찬영

1) 허균의 작품활동

허균은 그의 『성소부부고』 8에 전의 항목을 두어 5편의 전을 실어 놓았는데,「엄처사전」,「손곡산인전」,「장산인전」,「남궁선생전」,「장생전」 등 5편이다.

「엄처사전」은 강릉에 살았던 엄충정이란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고 초두에 밝히고 있다. 엄처사의 효성과 청렴결백한 인격을 찬양하여 표현하였는데, 성실하고 재능 있는 인재가 나라를 위해 일하지 못하고 시골에 묻혀 일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 위하여 엄처사를 표본으로 등장시켜 나타냈다. 「손곡산인전」은 사건전개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작자의 주인공에 대한 관찰과 묘사의 특이함이 특기할만하다. 손곡산인은 허균 자신의 스승이며 부친과의 친분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손곡산인전」의 주제는 주인공의 불우한 일생을 통하여 당시의 모순된 사회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생전」은 여러 가지 도술을 구사하는 장생의 사실을 구성한 소설이다. 원래 신선사상이 난세의 산물이고, 도사의 도술 역시 정상적인 가치관이 전도되는 혼란상을 맞이하여 초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악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염원 속에서 발양된 이상 표현 수단이었다. 우리 민족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너무나 무능하게 강토가 왜적의 힘에 짓밟히고 보니, 현실적인 수치와 무너진 자존심을 견디기 어려워 도술이라는 초능력적 기적 같은 것을 염원하였다. 「장산인전」은 앞에서 고찰한 「장생전」보다 도술의 행사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의 관련을 더욱 깊게 하여, 장생이 임란 때는 피신하여 어디론지 사라진 반면, 장산인은 일본 사람의 칼을 받아 검해하는 모습을 직접 묘사하고 있어서 민족의식이 더 강하게 반영되었다. 「남궁선생전」은 실존 인물 남궁두의 이야기를 쓴 것으로 구성하였는데, 그가 다시 선사를 만나 신선술을 배운 이야기와 그 선사의 도술 행각 등 광범위한 신선사상이 담겨져 있다. 『성소부부고』 이후 『성수시화』를 지었으며, 그 다음해에 허균은 우리나라의 최초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발행한다.

2) 허난설헌의 작품활동

허난설헌이 창작활동을 하던 16세기 말의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야로 신분제도는 더욱 고착되어 신분상의 차별은 심화되었고, 여성에 대한 봉건적 예속도 더욱 강화되었던 시기였다. 여성은 순종의 의무와 체념만이 주어질 뿐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되는 시대였다. 허난설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녀 자시의 작품들을 묶어 출간하고자 하는 꿈은 결코 갖지 못했다. 허난설헌이 세상을 뜬 다음 해 허균은 남아 있는 허난설헌의 유고들을 모으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시들을 정리하여 시집을 편집했다. 시집을 정리 편집한 후 허균은 원고를 당시 문단의 거물이었던 유성룡에게 보내어 평가와 아울러 『난설헌집』에 실을 발문을 부탁한다. 유성룡은 허난설헌의 시에 대해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으며, 발문을 써 보냈다. 또한 오명제가 『조선시선』을 편집하는 과정 속에 허균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허균은 누이의 유고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허난설헌의 시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던 중, 유연히 마주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허난설헌의 시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 원군으로 온 명나라 유격 장군 남방위가 편찬한 『조선고시』와 『조선시선』을 통해 중국에 전해진 이후, 중국의 여러 시점들에 허난설헌 시는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수록되게 된다.

허난설헌의 대표작을 살펴보자면 신선(神仙)이나 선경(仙境) 등을 묘사해서 작자의 감정과 사상

을 담은 시가 양식의 일종인 『유선시』가 있다. 조선 선조(宣祖) 때 씌어진 한시인 『빈녀음』 '가난한 여인의 노래'라는 시제를 가지고 있다. 『빈녀음』은 당시의 불평등한 사회현실을 우회적으로 고발한 현실비판적인 참여시이다. 『규원가』는 그 당시 여인의 눈물 속에서 조선 남자들의 가부장적이고 몰지각한 태도를 엿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말도 못하면서 인생을 보내야 하는 조선 여인의 눈물사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봉선화가』는 봉선화꽃잎을 따서 손톱에 물들이던 고유한 풍속을 소재로 하여 여인의 아름다운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참고문헌》
김성남, 『허난설헌의 시 연구』, 소명출판, 2002, PP.10~42
김현룔, 『허균(문학의 이해와감상29), 건국대학교출판부, 2008, PP.80~119

4. 문학사적의의

국어국문학과 20161045 박진경

『홍길동전』은 이른바 언문으로 썼다. 언문은 아낙네나 천한 백성들이 읽는 글이라고 생각했고, 선비나 점잖은 사람은 진서 곧 참 글인 한문으로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회에서 맨 처음으로 국문소설을 썼다. 그는 글은 뜻이 통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자를 빌려 뜻을 표현할 때에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시했다.『홍길동전』을 언문으로 쓴 의도는 그가 사랑하고 아끼던 민중이 쉽게 읽고 재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민중의 공감을 얻고 각성을 불러일으켜서 사회모순을 고발하려는 데에 있다. 『홍길동전』은 일원적인 의미로는 글 전체에서 개혁 또는 혁명을 지향하는 줄거리를 담고 있고, 다원적인 의미로는 서얼의 차별 철폐, 빈민의 구제, 탐관오리 또는 토호의 징벌을 줄거리고 삼고 있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폭력으로 현실의 부조리에 저항하면서도 결코 효도와 우애를 잃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곧 서러움을 받는 신분이면서도 사람의 도리인 인륜을 저버리지는 않는다. 이 점을 두고 유교사상에 충실했다고 말한다. 이 소설은 신분타파의 사상을 깔고 있고, 서얼 차별 철폐에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의 시대는 조선조의 세종 때로 잡고 있다. 세종은 훌륭한 통치자로 밝은 정치를 편 군주로 일컬어져왔다. 세종은 문화와 학술을 포함하여 국방 또는 농사정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적을 이루어 성군으로 일컬어지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러나 수령의 횡포나 관권의 압제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세종실록』을 보아도 그때의 사회 또는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거나 자족하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관리의 수탈에 늘 제재를 가하는 기록도 있다. 이것은 적어도 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치중한 결과였고, 또 훌륭한 통치자가 나왔다고 해서 병폐가 하루아침에 뿌리 뽑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허균이 태평성대라는 세종 때를 그 시대 배경으로 잡은 것은 변칙적인 또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빈민을 구제하고 대다수의 지배층이 빈민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다.

전란을 다룬 허균의 우국시는 전란의 비극적 실상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임란을 다룬 우국시는 전란 당시의 상황이나 민족적 비극, 개인적 고난이나 불행 등을 사실적 필치로 그리고 있어 임란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허균의 많은 우국시들은 민족문학으로서의 가치도 적지 않으며, 우리의 우국문학을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란 당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난설헌의 시 문학은 중국 문학의 영향아래 한문으로 기록되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제도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확고한 남성중심사회에서 일종의 금기를 뛰어넘은 독보적인 시도였고 그것은 당대 문인 사회에 하나의 충격이었다. 조선 사회를 힘겹게 살아간 한 여성의 절절한 삶의 기록인 동시에 당대 여성들의 불합리한 삶을 고발하는 의미를 획득하면서 그 문학적 가치가 증폭됐다.

《참고문헌》

이이화, 『허균의 생각』,교유서가, 2014, p.277-285
이문규, 『허균 문학의 실상과 전망』,새문사, 2005, p.317-319
유임순, 『허난설헌 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의식 연구』공주대학교 대학원, 2004, p.72-74

6조 - 김동명

1. 생애

인문학부 20171055 안문혁

초허 김동명 시인은 1900년 6월 4일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에서 아버지 김제옥과 어머니 신석우 사이에 독자로 출생했다. 김동명 시인은 향리에서 자라다가 9세 때 부모님을 따라 함경북도 서호로 이사를 갔다.

192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영생중학교를 졸업하고 서호와 강서 등지에서 국민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였는데, 그곳의 풍경에 이끌려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1922년에 평안북도 안주로 가서 다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되어 본격적인 시인으로써 삶을 시작했다.

1923년 처음으로 『개벽』 지(통권 40호)에 발표된 「나는 보고 섰노라.」, 「당신이 만약 내게 문을 열어 주시면」「애달픈 기억」- 이 세 작품은 이때 창작된 것이지만, 김동명 시인의 습작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김동명 시인의 「당신이 만약 내게 문을 열어 주시면」이라는 작품은 친구한테서 빌려 읽은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 크게 감동을 받아 즉흥으로 지었던 것이다. 이렇게 습작생활을 하다가 1925년 3월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산에서 인쇄소를 경영하던 강기덕씨의 도움으로 원하던 일본유학을 가게 되었다.

김동명 시인은 일본에 가서 청산학원에 입학하여 시를 짓기 시작하였다. 1926년 당시 유일한 문예지 『조선문단』에 산문시 등을 계속해서 발표하였고 시인으로 인정받았던 시기도 이 시기였던 것 같다. 1930년에 와서 첫 시집인 『나의 거문고』를 발간하였다. 이 당시는 일제의 탄압으로 정신이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컸고 이러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자연 속에 묻히려고 애를 썼는데 이 때 만들어진 시집이 『파초』였다. 일제의 탄압이 극도에 달하자 시에서도 의욕을 잃고 1942년에는 「술 노래」「광인」을 마지막으로 해방되기 전까지 3,4년 시를 쓰지 않았다.

이 후 목상 노릇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고 해방이 되자 김동명 시인은 흥남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1946년 3월 함흥학생사건에 동조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살이를 하였고 조선민주당 함남도위원장까지 지내다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어 숙청당했다. 그리하여 김동명 시인은 이런 지옥 땅을 벗어나고자 했고 이 때 지금까지 써 온 시 작품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는데 그렇게 얻어진 시집이 『삼팔선』, 『진주만』이었다. 1947년 김동명 시인은 월남하여 다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사 생활과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1954년에 『진주만』으로 <자유문학상>을 수상하고 1955년에는 첫 정치평론집 『적과 동지』를 출판하였고 서울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 있는데 1957년에 출판한 『목격자』에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 후 많은 글을 썼는데, 이를 통해 김동명 시인의 생활이 단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김동명 시인은 문학 뿐 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자유당 말기에는『동아일보』에 정치평론을 많이 썼고 1960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사직하고 참의원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지병인 고혈압을 앓고 고생하던 김동명 시인은 결국 1968년 65세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

《참고문헌》

이성교, 『김동명 문학연구』(vol. 2), 김동명 학회, 2015.

2. 업적

국어국문학과 20151126 이제훈

김동명은 1923년 〈개벽(開闢)〉 10월호에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에게 '당신이 만약 내게 문을 열어주시면' 외 '나는 보고 섰노라', '애닯은 기억' 두 개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1930년 그는 첫 시집 <나의 거문고>를 간행하였다. 또 '조선 문단', '동광', '조광', '신동아'등의 잡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38년 47편을 엮어 두 번째 시집 <파초>를 간행했다. 이 두 시집은 자연을 예찬하며 은둔과 자적의 생활 속에 식민지 시인의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특히 <파초>는 김동명의 대표 작품으로 손꼽히며 월남한 가운데 파초와 조국을 잃은 본인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대변해 중고등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자료로 실리기도 하였다.

1948년 공산정권으로부터 피하여 남하한 뒤부터는 시풍과 서정성에서 벗어나 다급한 현실과 정치 사회적인 풍자와 관념성에 치우치게 되었다. 동아일보에 신랄하고 예리한 정치평론을 다. 1947년 본인이 교편을 잡고 있던 이화여대 출판부 발행'진주만'으로 1954년에 자유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60년에 초대 참의원의원에 당선, 5·16직전 까지는 초대 참의원으로 있었다. 그의 그 밖의 작품으로는 '목격자', '내 마음은'이 있다. 이 밖에 수필집 '세대의 삽화', '적과 동지'가 있고, '김동명 문집'이 1965년 3권으로 출간되었다.

김동명 시인은 시대를 마주 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각 시선을 달리한 태도를 가졌다. 한 사건에 대해 1차원적인 시선이 아닌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21세기에 걸 맞는 위인이었다. 비록 암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연을 노래하기도 했지만, 끝내는 현실을 재건하고자 정치와 사회문제에 앞장섰고 학문을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교편을 잡기도 하며 그 시대의 지식인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현승, 『한국현대시해설』, 관동, 1975.
엄 창섭, 『초허 김동명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1986.

3. 대표작품 분석

국어국문학과 20161092 전소민

파초(芭蕉)

김동명(金東鳴)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鄕愁)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들에 붓는다.

이제 밤이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니리,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울의 겨울을 가리우자.[10)]

이 작품은 5연 2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유시로, 조광(朝光) 1936년 1월호에 발표되었다. 이 시는 작자가 1938년에 첫 시집 『파초』를 출간할 때 시집 제목으로 쓴 작품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시는 원산지를 떠나와 이국(異國) 땅에서 자라나는 파초를 통해 망국(亡國)의 한을 노래한 작품이다. 파초는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나는 관상용 다년생 식물로, 이 시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로 쓰이고 있다. 시인은 따스한 남국을 떠나와 추운 이곳에서 가련하게 살아가는 파초의 운명을, 자유를 잃고 조국을 항상 그리워하는 화자 자신과 동일하제 제시하고 있다.

먼저 1연에서는 조국을 떠난 파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스한 남국을 떠나와 살아야 하는 파초의 '가련한' 처지에서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파초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2연에서는 이국땅에서 남국을 향해 향수를 불태우는 파초를 '너'라고 의인화시켜 그의 외로움을 표출하며, 3연에서는 파초의 모습을 '소나기를 그리는 정열의 여인'에 비유한다. 화자는 그런 파초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샘물을 길어 그의 발등에 붓는다. 그리고 4연에서는 밤이 깊어 날씨가 차가워질 것을 걱정한 화자가 파초를 자신의 방에 들여놓겠다고 한다. 마지막 5연에서는 화자가 즐거이 파초의 '종'이 되어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겠다고 다짐한다. 이것은 파초와 화자의 처지가 동일하다는 일체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편 4연의 '밤'과 5연의 '겨울'은 모두 화자와 파초가 겪는 시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련을 함께 나누며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일체감이 된 그들은 결국 '너'와 '나'의 개별적 존재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 운명체임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치맛자락'으로 서로를 '가리워' 주고, 암담한 현실의 고통을 극복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다시 말해, 파초에서 느꼈던 동정심이 상호 교감

10) 金顯承,『韓國現代詩解說』增補版(關東出版社,1975), 32~34쪽.

(相互交感)의 과정을 거쳐 애정으로 심화됨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일체화된 것이다. 여기서 '치맛자락'이란 파초의 넓은 잎사귀를 뜻할 뿐 아니라, 성숙한 여인의 애정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제의 모진 탄압을 상징하는 우리의 '겨울'을 막아 주는 보호막이자 도피처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조국 광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도 있다.

《참고문헌》

金顯承. 『韓國現代詩解說』. 關東出版社, 1975.
嚴昌燮. 『金東鳴研究』. 학문사, 1987.
양승준·양승국. 『한국 현대시 500선-이해와 감상(중)』. 월인, 2004.

4. 유적지

국어국문학과 20161059 엄지호

(1) 김동명 문학관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하리 71

건립 목적 : 김동명은 강릉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김동명의 시는 전원적인 서정과 민족적인 비애를 표현했다. 이에 김동명의 삶을 재조명하고 문학정신을 계승하고자 2013년 7월 3일 개관하였다.

현황 : 전시실에는 김동명 시인이 가지고 있던 책을 중심으로 김동명의 서재를 재현해 놓았으며, 시집, 정치 평론, 수필집, 생애를 알 수 있는 연보, 문학 활동의 내역, 그가 발간한 각종 책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세미나실에서는 각종 문학 행사와 동시화 전시, 시 낭송회 백일장, 문인들의 월례회 등을 진행한다.

(2) 김동명의 시비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건립 목적 : 김동명 시인은 목가적 감성을 가진 전원파 시인이기도 하였지만 현실참여적이며 민족적인 저항시인이기도 하였다. 또한 군사정권에는 선비적 정신으로 불의 앞에 항거한 진정한 종교인이기도 하였다. 이에 그를 기리고자 건립했으며 이 시비는 문향의 자긍심으로 작용 할 것이다.

현황 : 공원의 입구에는 강릉시에서 제작, 설치한 '김동명 시비공원' 표지석이 있고, 23계단을 올라가면 잔디 공원에 시비가 세워져 있다. 시비의 전면에는 '김동명 시비'라는 비명 아래 시인의 초상화가 판각되어 있고, 후면에는 건비문이 새겨져 있다. 시비의 좌측과 우측에는 보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좌측 보조비석 전면에는 「내 마음」이, 후면에는 황금찬 시인의 송시가 조각되어 있고, 우측 보조 비석 전면에는 「파초」가, 후면에는 시인의 장남 김병우가 쓴 '김동명 시인 약력'이 조각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동명학회, 「김동명 문학연구 vol 02」, 김동명학회, 2015.
엄 창섭, 「김동명 연구」 학문사, 1987.

7조 – 정철

1. 정철의 생애

인문학부 20171062 우정화

송강 정철은 1536년(조선 중종 31년) 윤 12월 6일 서울 장의동에서, 4남 3녀 중 위로 형 셋 누나 셋을 둔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돈령부(왕실 친척들의 친목을 위해 설립된 관청)의 판관 정유침이며, 어머니는 죽산 안씨 대사간 안팽수의 딸이다. 정철의 유년시절은 10살 무렵까지 매우 다복했는데 그의 맏누이가 당시 세자였던 이종의 후궁 – 숙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나이 10살이 되던 해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로 부형이 화를 입게 되면서 그의 집안은 참혹한 화를 입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10대 초, 중반의 시기를 아버지의 유배지를 따라다니며 고난에 찬 생활을 하는데, 그의 나이 16세 되던 1551년 (명종6년) 왕자(오늘날의 선조)가 태어나면서 정철의 아버지의 유배 생활이 끝난다.

정철의 아버지 정유침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부친의 묘소가 있는 담양 창평의 당지산 기슭으로 거처를 옮긴다. 정철은 27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 약 10년간을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담양 창평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자,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다.

1552년(명종 7년) 정철의 나이17세에 문화유씨 유강항의 딸과 혼인하여 4남 2녀의 자녀를 두게 된다. 그리고 1560(명종 15년) 그의 나이 25세 때 「성산별곡」을 짓는데, 이 노래는 성산기슭에 김성원이 구축한 서하당과 식영정을 배경으로 한 사시의 경물과 서하당 주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1562년 (명종 17년) 과거 급주 후 1566년 (명종 21년)에 경영군 사건이 일어났는데 명종이 자신의 종형이 관여된 일이므로 조용히 넘기려 하였으나 정철이 명종의 요청을 거부하여 파면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로 인해 정철은 전라도 광주로 돌아가게 되는데 명종의 승하로 선조 즉위 후 이조좌랑에 부임한다. 그러다 1570년(선조 3년) 35세 때 부친상을, 38세 때 모친상을 당하여 경기도 고양 군신원에서 각각 2년여에 걸쳐 시묘살이를 한다. 40세인 1575년(선조 8년) 시묘살이를 끝내고 벼슬길에 나가 직제학성균관사성, 사간 등을 역임하지만 이 무렵 본격화된 동서분당에 따른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벼슬을 버리고 담양 창평으로 돌아간다. 창평에 있을 때에 선조로부터 몇 차례 벼슬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43세 때인 1578년(선조 11년)통정대부 승정원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으로 승진하여 조정에 나아갔다. 그러나 뇌물사건으로 반대파인 동인의 탄핵을 받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후 1580년(선조 13년)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때 「관동별곡」과 「훈민가」 16수를 지어 시조와 가사문학의 대가로서의 재질을 발휘했다. 1585년 (선조 18년) 50세에 그는 퇴임을 하고 귀향하여 「사미인곡」을 쓴다. 1590년 (선조 23년) 55세에 좌의정, 광해군 건저 사건으로 강계로 유배를 당하다가 1592년 (선조 25년) 57세에 임진왜란 발발로 선조를 의주로 모시게 됐지만 동인의 모함으로 다시 사직한다. 그 후 1593년 (선조 26년) 58세의 나이로 강화도에서 서거한다.

《참고문헌》

박영주,『고집불통 송강평전』, 도서출판고요아침, 2003, pp.32-45

2. 정철의 작품세계

국어국문학과 20151116 박지은

송강 정철은 다양한 작품을 창작한 문호지만 대부분 시조, 가사, 한시로 대표되는 시문학에 작품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정철의 문학작품들은 그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 때문에 작품세계 또한 그가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내적, 외적 상황들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교우활동으로 인한 즐거움, 흥에 겨워 취락을 즐기는 모습 등 기쁜 감정들도 담겨있지만, 네 번의 유배생활과 갖은 탄핵들, 가난에서 오는 고통,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의 사별 등에서 오는 감정들도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철의 문학작품들은 유교사상과 도가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먼저 유교사상은 당시 조선조 사대부들 사이에서 깊게 자리 잡았던 것으로, 사대부들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충신연군과 우국애민의 의식이 흐르고 있는 작품들을 주로 배출하였다. 정철 역시 이러한 유가 사대부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철의 작품 중 그 전체가 충신연군의 사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들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여성화자와 '님'이 등장하고 정철이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때문에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님'의 존재를 임금으로 해석하여 일편단심 충성을 그리고 있다. 이는 정철 문학이 갖는 연군지정의 면모와 연결된다. 하지만 정철이 임금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만 노래한 것은 아니다. 평소 목민관으로서의 기본적 윤리를 주장하던 그는 백성들이 안녕과 행복을 누리도록 성은을 베푸는 임금에게만 충성하였다. 이런 정철의 우국애민 사상 또한 작품 곳곳에 드러나 있다.

또한 당시 작품들은 도가에서 추구하는 신선 사상이나 취락 사상이 담겨있는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정철의 시가문학 역시 도가사상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정철은 세상사를 초탈하여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지내고 싶다는 소망과 정계에 재진출하고 싶다는 속세에 대한 열망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갈등과 힘든 현실을 작품속의 신성사상과 술을 통하여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실제로 그의 작품 곳곳에는 신선사상과 술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관동별곡>에는 관동의 아름다운 산수와 신선이 된 화자의 어우러진 분위기가 그려져있다. 이는 그가 지치고 힘든 현실을 환상적 공간으로 대치하여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보고자 한 것이다. 또한 북두성을 술을 뜨는 국자, 은하수를 술이 흐르고 있는 모습으로 서술한 부분도 있다. 정철에게 음주는 신선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고, 현실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송지은(1998), 「송강정철문학연구」, 경기대석사논문, pp.36-52.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월인, 2002, pp.93-132.

3. 정철 문학 평가와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61065 이단비

송강 정철이 남긴 문학 작품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절창이 아닌 것이 없다. 특히 그는 국문시가 창작에 남다른 능력을 지녀 주옥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정철이 남긴 문학작품의 우수성을 말해주는 그의 문학에 대한 호평은 당대부터 있었다. 그 평들은 인상비평에 지나지 않지만 정철 문학의 우수성이 언어미의 구현에 있다는 것을 직관하고 있는 평들이다. 이와 같이 정철 문학의 우수성은 고유어를 자유자재로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문학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장감을 살리는 고유어의 적절한 구사와 친밀감을 높이는 어휘를 선별하여 사용함으로써 작품과 독자와의 거리를 소멸시킨 그의 탁월한 작가적 능력이었다. 정철 문학의 커다란 특징은 형식이든 주제든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사물을 바라보는 폭이 넓었고, 다양한 시각을 가졌다는 증거이다. 정철에게는 자연 역시 이중성을 가진다. 정철은 사대부 일반이 가지는 자연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현실의 초탈이라는 의미의 개성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또 송강 시조는 호방한 풍류나 즉흥성이야말로 중요한 매력을 지녔다. 쉽게 틀 지우기 어려운 인간적인 매력과, 강렬한 개성이 용솟음치는 문학적 감수성의 세계에 끌리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문학작품들 속에는 시대적 삶의 여건과 일상생활의 구체적 단면들이 두루 용해되어 있다. 아울러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린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점들이 특유 청신한 언어로 형상화되어 있다. 일상사적 관심과 탈속의 정서를 분방하게 노래하는가 하면, 토속적 제재를 통해 우리 고유의 풍토성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섬세한 여성적 정조를 바탕으로 연군의 정을 간절하게 노래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송강의 문학은 그가 겪어온 삶의 기록이며, 탁월한 감성으로 짜 놓은 질 좋은 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송강 시조의 교육적 의의는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사대부 시조에 대한 인식확대, 문학에 대한 흥미유발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대부시조나 송강 시조에서는 인간적인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조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철의 풍류적인 시조를 접했을 때 갖게 되는 놀람은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단순 도식에 균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진욱, 「송강 정철 문학의 재인식」, 역락, 2004
박영주, 「정철 평전」, 중앙M&B, 1999
고영화, 「송강 시조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4. 관동팔경. 죽서루와 낙산사

국어국문학과 20161095 정시연

- 죽서루

정철이 관찰사를 부임할 당시 이 죽서루의 오십천을 보며 임금의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등장한다.

> **진주관 죽서루 아래 오십천에 흐르는 물이**
>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 가니,**
> **차라리 그 그림자를 한강의 남산에 대고 싶구나.**

죽서루의 이름은 사방을 트고 마루를 한층 높여서 지은 다락형식의 집을 뜻하는 누(樓)와 누의 동쪽으로 죽장사라는 절과 이름난 기생 죽죽선녀의 집이 있어 두 이름을 따 죽서루라고 하였다고 한다. 정철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관동팔경 중 하나인 죽서루는 삼척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오십천에서 가장 뛰어난 절경지로 알려진 곳으로 죽서루에서 내려다보는 오십천의 경관과 강 건너에서 바라보는 죽서루와 절벽부의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죽서루의 누각은 창건자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동안거사집>에 의하면, 1266년에 이승휴가 안집사, 진사후와 같이 서루에 올라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266보다는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만 할 수 있다. 정면은 7칸, 북쪽 측면은 2칸, 남쪽 측면 3칸의 특이한 형태의 누 건물이며 이를 인정받아 현재 보물 제 213호로 지정되어 보호 되고 있다.

- 낙산사

낙산사 또한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로 동해 일출경이 매우 유명한 곳이다. 671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낙산사에서도 의상대의 경치를 봐라보고 정철은 <관동별곡>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울 제 / 낙산동반으로 의상대 올라앉아 /**
>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일어나니 / 상운이 집피는 동 육룡이 받치는 동 /**
> **바다에 떠날 제는 만국이 어리더니 / 천중에 치뜨니 호발을 헤리로다 / (후략)**

낙산사의 주요 경관요소인 낙락장송이 2005년 강원지역의 큰 산불로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경관이 크게 훼손이 되었으나, 의상대 및 홍련암 주변의 해안은 아직도 시스택으로 인한 바위의 경관이 뛰어나다. 현재는 진신사리를 보관한 보물 제 1723호 공중사리탑, 보물 제1362호 건칠관음보살좌상, 보물 제499호 칠층석탑등 많은 관음상을 보관하고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청 삼청죽서루,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5,00280000,32)
삼척 문화관광 죽서루
(http://tour.samcheok.go.kr/02nice/06.jsp?amode=_viw&idx=2&type=_blank&total=Y&cpage=4)
낙산사 홈페이지
(http://www.naksansa.or.kr/web/intro.php)
문화재청 낙산사
http://search.cha.go.kr/srch_new/search/search_top.jsp?searchCnd=&searchWrd=&home=total&mn=&gubun=search&query=%EB%82%99%EC%82%B0%EC%82%AC&x=0&y=0)

8조 - <해가>

1. <해가> 원문 해독 및 작품 소개

국어국문학과 20161106 최예진

<해가(海歌)>

龜乎龜乎出水路 (귀호귀호출수로)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掠人婦女罪何極 (략인부녀죄하극) 남의 부인을 앗아간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汝若悖逆不出獻 (여약패역불출헌) 만약에 거역하여 내놓지 않는다면
入網捕掠燔之喫 (입망포략번지끽) 그물로 너를 잡아 구어 먹겠다

이 노래는 가락국의 건국설화인 <구지가(龜旨歌)>의 변형이다. 노래 이름을 <해가(海歌)> 또는 <해가사(海歌詞)>라고 부르는데, '해가사(海歌詞)'는 '해가(海歌)'의 가사(歌詞)로 보아 노래 이름을 일단 <해가>라고 하자.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首露)'왕에서 '수로(水路)'부인으로 이름이 바뀌고, 한역의 방법도 4자(四言)와 5자(五言)로 한역한 <구지가>에서 칠언절구(七言絶句) 한역(漢譯)인 <해가>로 바뀌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인지(認知)도 발달하여 바다에 사는 용(龍, 곧 세상에 일어나는 기이한 사실들)을 초기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신으로 인식하다가 차츰 인격적인 신이나 인간으로 대등하게 인식하고, 마침내는 동물의 하나인 미물(微物)로 인식한다.

작품의 구성도 다음과 같이 ① → ② → ③으로 전개되고, 위협적인 주문(呪文, 巫歌)으로 용으로부터 수로부인을 구출함으로써 현실적 재앙을 극복하고 있다.

① 용이나 신으로 인식 : 용이여(신이여) 수로부인을 내 놓으시오.
② 인간으로 인식 : 남의 부인 약탈한 죄 그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③ 동물로 인식 : 네가 감히 거역하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

《참고문헌》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pp.70-76.
이용수, 『〈구지가〉, 〈해가〉, 〈현화가〉의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pp.151-152

2. <해가>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61078 이혜원

해가의 원문에 사용된 '구호 구호(龜乎 龜乎)'는 구지가의 '구하 구하(龜何 龜何)'와 상통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의미를 비슷한 리듬으로 노래하고 있다.[11] 이처럼 구지가와 해가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배경이나 상황이 다르다. 구지가는 임금을 맞이하기 위한 행위의 재현인 반면, 해가는 용이나 거북과 같은 신을 언급하지만 그들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꾸짖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구지가보다 해가에서 남성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해가를 주술적인 의미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해가를 사상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도 한다. 해가가 모권체계의 말기적 현상으로 보고 부권체계로의 이행을 시도하는 노래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구지가는 여성이 남성에게 요구한 형식을 취한 반면 해가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요구한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점을 보아 해가가 여성 소유의 시 문학이 남성 위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12] 또한 해가를 통해 인간과 악신의 갈등을 해결하고자했다는 견해도 있다.

초기 불교는 왕실로부터 유입되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 저항이 적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간편하고 쉬운 포교 방법이 필요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경주권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있던 향가를 이용하는 것이었다.[13] 또한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성덕왕조를 보면 당시 민심이 흉흉하고 흉년이 자주 들었다는 기사가 있다. 이를 보아 해가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굿 노래라고 보기도 한다.[14]

끝으로 해가는 한역되어 전해지고 있으나 여러 사람들이 불렀다는 면에서 원래 우리말이 사용될 때 쓰이던 어떠한 법칙이 존재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거북아 거북아'라는 구절에서 구지가와 같이 의인화한 거북, 인간과 거북이가 동일시된 '표상적 언어'[15]의 사용 양상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가이다.[16]

《참고문헌》
이현우, 「헌화가와 해가의 연구 : 주요 화소의 의미 파악을 중심으로」, (2002.08).
정상균, 「「해가」연구」, 『선청어문』 11.12 pp.457-459, (198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2005.03.01.).

11) 정상균(1981), 「「해가」연구」, 『선청어문』11.12 pp.457-459, p.477.
12) 위의 논문, p.477.
13) 이현우(2002.08), 「헌화가와 해가의 연구 : 주요 화소의 의미 파악을 중심으로」, p.57.
14)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p.104.
15) 표상: 지각된 여러 요소 중에서 선택이 이루어져 두드러진 것≒관념.
16) 앞의 논문(1981), p.478.

3. <해가> 배경설화의 전설적 문명세계

국제학부 20147001 WUBOLUN

(헌화가가 지어진 바닷가에서 강릉으로) 이틀 길을 더 가다가 바닷가 정자(臨海亭)에서 점심을 먹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납치하여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이 땅에 넘어져 혼절하였으나 아무런 방안이 없었다. 이때 한 노인이 말하기를 "옛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했으니, 지금 바다의 미물이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오. 지역사람들로 하여금 막대로 언덕을 두드리며 노래를 지어 부르자 부인을 모시고 나와 공에게 바쳤다. 공이 부인에게 바다 속의 일을 물으니 온갖 보물로 된 궁전에 먹는 것은 감미롭고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부인의 의복에서는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향기가 난다. 수로부인은 자태와 용모가 절대가인이라 매번 깊은 산과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번 신물(神物)들에게 납치되었다고 한다.[17)]

<해가> 배경설화에 나타나는 주술 모티프의 양상과 상징성

주술은 큰 맥락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 인간의 길흉화복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기술을 통칭한다. 이러한 주술은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며 그 원리와 양식에 따라 구분되어 왔다. 요컨대, 영국의 인류학자였던J.프레이저가 주술을 유사한 법칙에 의한 유감주술(类感咒术)"과 접촉 또는 전염의 법칙에 지배되는 감염주술(感染咒术)"로 구분하고, 양자를 일괄하여 공감주술(共感咒術)[18)]이라고 명명했다면, 앨런 모러와 르네 라이트는 이를 더욱 확장해 모든 마법의 지배적인 힘으로써 주술의 개념을"공감주술(共感咒术)과 반감주술(反感咒术[19)]) 로 제시한다. 여기서 반감주술이란, 공감주술을 비롯한 특정한 주술의 호과에서 피해가거나 이를 막아내는, 대항주술 전반을 의미하며 예방으로써의 금기[20)]역시 함의한다. 이성적사고로 첨예화된 현대에 이르러서도 신자(信者)가 아닌 이들이 십자가를 쥐고 기도하거나 부적을 써서 붙여 놓는 등 반감(反感)의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데이터화된 과학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갈(解渴)의 효과가 여기에 담보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반감주술이 일반적으로 미지의 것에서 사람을 보호한다면, 나아가 초월적인 존재들을 퇴치하거나 굴복시킬 수 있다면,종교로서의 제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사(祝詞)로서<해가>가 가지는 주술 모티프의 해석에 대한 보다 다의적인 확장이 가능해진다.

《참고문헌》
김명준, 중세시가론 강의자료집,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2-13
서철원, 『향가의 역사와 문화사』, 지식과 교양, 2001,
이승우・이찬욱,『불을 활용한 퇴치적 주술의 모티프 변용 및 확장 연구』,우리文學硏究 제49집, 2016, pp.61-62

17) 便行二日程 又有臨海亭 書鱔次 海龍忽覺夫人入海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掠攪《三國遺事》 水路夫人
18)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미술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1998.678면.
19) 테리 브룩스 김효명 옮김 <판다지 레퍼런스> 들녘 2002,86면
20) 금기 혹은 터부라고 지칭되는 이 개념은, 불길한 것들에서 입을 수 있는 패해를 보호한다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일종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특정 사회의 원칙이도 한다.

4. 답사지역과 <해가>의 관계

인문학부 20171080 이호준

해가(海歌) 서두에서 나오길, 수로부인은 순정공(純貞公)[21]과 함께 순정공의 강릉태수 부임을 위해 경주에서 강릉으로 행차하고 있었다. 경주에서 순정공의 부임지인 강릉까지의 약 300Km에 이르는 긴 여정에서 그들은 잠시 식사를 하기 위해 바닷가에 있는 정자(임해정)에 들렀다.

그때, 수로부인의 아름다운 자태와 용모에 반한 용(龍)이 나타나 그녀를 붙잡아 바다로 사라져 버렸다. 이에 갑작스럽게 아내를 납치당한 순정공은 대경실색(大驚失色)[22]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그에게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말을 전하면서 납치된 수로부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가 말하길 경내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구해낼 수 있다 하니, 순정공은 이를 듣고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였다. 이때 부른 노래가 바로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에 나오는 해가(海歌)이며, 노래를 부른 장소가 바로 해가터 또는 해가사 터라고 불리는 장소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백성들이 모여 해가(海歌)를 지어서 불렀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그 내용과는 별개로 해안지역이다 보니 익사한 사람을 위한 초혼굿[23]의 향취를 지녔다고 하기도 하며 제의(祭儀)[24]에서 불린 주술가요, 주사(呪詞)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전영권, 『삼국유사 기이편 "수로부인"조에 근거한헌화가(獻花歌)와 해가(海歌) 배경지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4, 삼국유사.

21) 33대 성덕왕(聖德王) 때의 강릉태수(江陵太守), 수로부인의 남편이다.
22) 너무 크게 놀라 얼굴빛을 잃다.
23) 부산 지역에서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절차.
24) 영적 존재인 신에게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과 동식물의 풍성한 증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의례